



2019. 1. 2

위닉스 [탐방노트]

 가전·IT부품 담당 김민경
 (2004-9583) kim.min-kyeong@shinyoung.com

1. 사업개요

- 국내 제습기 M/S 1위 브랜드 '뽀송'과 공기청정기를 제조, 판매하는 생활가전업체

> 1973년 냉장고, 에어컨용 열 교환기 생산업체로 설립되어 설립 초기 에어컨 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며 사업 시작. 안정성은 확보되었지만 성장성은 한계. 이후, 부품업체에서 탈피해 자사브랜드 제품을 개발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. 현재는 국내외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를 주력으로 제조, 판매하는 생활 가전 업체로 거듭남

주요 제품: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의류건조기, 정수기, 가습기 등

> 해외에 총 5곳의 현지 법인 보유. 중국, 태국(2)에 소재하는 3개 해외법인에서는 제습기, 에어컨, 냉장고 등의 핵심부품인 열 교환기를 제조, 판매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 소재하는 2개 해외법인은 동사의 생활가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

> 매출 비중: 2018년 3분기 기준 공조기(공기청정기, 제습기, 에어워셔) 81%, 열 교환기 4.9%, 정수기 3.8%, 에어컨 부품 2%, 기타 6.7%

> 판매 채널: 전체 매출에서 하이마트&전자랜드 등 양판점 20%, 온라인 판매 채널 30-40%, 홈쇼핑 10%

> 주주 현황: 유희종 외 2인 50%, 자사주 8.6%

2. 사업현황 및 주요 이슈

- 제습기

> 2000년대 초 제습기 시장에 진출했고 2012년부터 국내 제습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. 2013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상황. 2013년 기준 연 150만대 시장을 형성했고 그 중 동사가 70만대 판매. 2014년부터 마른 장마가 시작되면서 제습기 시장이 축소되었고 현재는 연 50-60만대 시장 형성

> 2014년 제품 생산 과잉으로 재고 누적, 구형 제품 재고는 2017년에 모두 소진 완료

- 공기청정기

> 2016년도에 공기청정기를 출시해 연 100만대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 중 동사가 10만대 판매. 2017년도에 시장이 성장하면서 연 150만대 규모까지 성장했고 그 중 동사가 30만대 판매. 올해도 미세먼지 이슈가 지속되면서 공기청정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연 200-250만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판단. 3분기 누적 기준 동사는 35만대 판매

> 과거에는 봄철에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했는데 올해부터는 겨울철에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호조를 이루고 있고 동사는 M/S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

- 건조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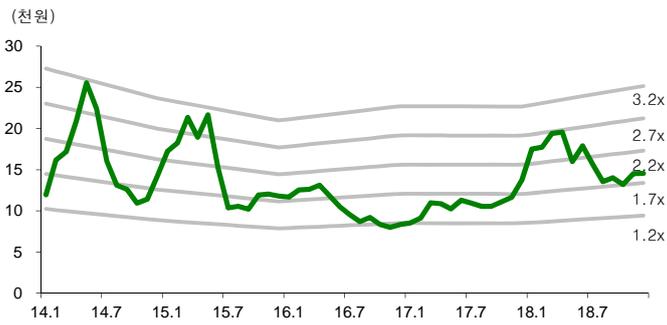
> 국내 의류건조기 시장은 2016년 10만대 수준에서 2017년 50-60만대 수준으로 증가. 올해는 2배 이상 성장해 150만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건조기 보급률은 아직 30%대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

> 동사는 제습기, 공기청정기 판매로 인한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 9월에 건조기를 출시했고 현재 건조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상황. 동사는 현재까지 누적으로 1만대 판매함

- 해외현지법인

- > 미국 법인에서는 기존에 아마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공기청정기를 판매해왔음
- > 2017년 하반기부터 코스트코와 계약해 해당 유통 채널로 2017년 연간 15만대, 올해 연간 20만대 정도 판매 예상
- > 아마존에서는 연간 10만대 판매되고 있음
- > 미국 시장에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호조를 이루며 다른 유통업체들도 납품을 요청하는 상황이며 다른 업체들과 협상 중

밸류에이션 도표



자료: 신영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■ 투자등급

- 종목** 매수 :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%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
- 중립 :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$\pm 10\%$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
- 매도 :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-10%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

- 산업** **비중확대** :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
- 중립** :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
- 비중축소** :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

-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해당 기업의 기업금융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,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,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지에 대한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